

[보도자료]

LSK Global PS-대웅제약, 코로나 19 치료제 ‘호이스타정’ 공동 임상개발 협력 MOU 체결

- LSK Global PS, 호이스타정의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총괄 수행
- LSK Global PS, 대웅제약과 공동임상개발체제를 확립해 신약 개발 가속화에 기여 목적
- 코로나 19 예방에서 치료까지 모든 임상시험 진행



[사진] 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(오른쪽)와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(왼쪽)가 ‘호이스타정’ 공동 임상개발 협력 MOU 를 체결했다.

[2021 년 1 월 26 일] 국내 선도 임상시험수탁기관(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, 이하 CRO)인 (주)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(LSK Global Pharma Services Co., Ltd.; 이하 LSK Global PS)가 지난 21 일 대웅제약과 ‘호이스타정(성분명 카모스타트 메실레이트)’의 코로나 19 임상시험에 대한 공동 임상개발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MOU 는 호이스타정의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 개발 참여, 임상시험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공유, 임상전략 수립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임상개발체제를 확립해 개발 가속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MOU 체결을 통해 LSK Global PS 는 모니터링을 비롯 임상시험 운영과 데이터관리, 통계 등 임상 시험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며, 코로나 19 예방 및 치료에 관해 진행되는 호이스타정의 여러 임상시험에서 일부 또는 전체 과정을 담당한다.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 시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를 위한 전략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.

호이스타정은 대웅제약이 국내 최초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로, 국내 코로나 19 경증 환자에서 임상 증상 개선과 빠른 바이러스 제거 속도를 확인한 바 있다. 이에, 현재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/3 상을 개시했으며, 환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, 증상의심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가장 빨리 복용해야 하는 약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방 목적의 임상시험도 수행할 계획이다.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바 없는 중증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국가 주도 대규모 연구 (Korean Covid-19 Trial 1) 임상시험도 병행하고 있다.

대웅제약 전승호 사장은 "호이스타정은 광범위한 환자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며 "LSK Global PS 와의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들을 신속하고 정확히 마무리해, 빠른 시일 내 환자들에게 코로나 19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전했다.

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는 "LSK Global PS 는 호이스타정을 비롯해 대웅제약의 코로나 19 관련 임상시험을 담당함으로써 코로나 19 종식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"며 "코로나 19 를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 19 임상시험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전했다.

#